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5월 20일(금)
---(음력 4월 20일)---
Пятница
20 мая 2022г.
№ 19 (1198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 문화 예술과 8학년 학생들의 졸업발표가 있었다.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마지막 종소리' 열린다

5월 20일부터 사할린주 학교들에서 <마지막 종소리>졸업 행사들을 시작한다. 첫 행사는 스미르니흐 구역에서 진행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아나와·흠스크·우글레고르스크·토마리·노글리키·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쿠릴스크 및 세웨로쿠릴스크 구역에서는 5월 21일 개최된다. 24일에는 돌린스크 및 마카로브 구역에서, 25일에는 코르사코브·네웰스크·포로나이스크·티몹스코예·오하 및 유즈노쿠릴스크 구역에서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2단계 러시아 학생 하계 체육대회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가 제11회 러시아 학생(청소년) 하계 체육대회 2단계를 개최한다. 대회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스파르타크'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체육대회 참가 대상은 극동 지역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다. 이틀에 걸친 경기 육상 종목으로는 달리기 100m를 비롯해 3km까지, 멀리뛰기, 높이뛰기, 세단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해머던지기, 원반던지기, 허들 및 장애물 달리기, 경보 5km와 10km, 7종 경기, 계주 4x400m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사할린, 스포츠 바이크 주 선수권 대회 시작

'푸쉬스티'간이 비행장에서 사할린주 스포츠 바이크 시합 및 선수권 대회 1단계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 돌린스크, 흠스크,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우글레고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연령 6세 이상 스포츠인 80여 명이 참가했다.

운행 결과에 따른 단체 1위는 '알리스'클럽이 차지, 2위는 스포츠 학교 기계 종목 스포츠부가, 3위는 '모터 플라이'클럽 팀이 차지했다.

사할린주 스포츠 바이크 시합 및 선수권 대회는 총 9단계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아나와에서 종결된다. 2단계 경기는 6월 18일-19일에 고르노자위드스크에서 열린다.

'봄' 정기 농축산물 박람회 개최

<2022-봄> 정기 농축산물 박람회가 5월 21일(토)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돗토르고블리'백화점 남쪽 행사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농산물 생산업체, 축산업체, 개인 농축산업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채소류, 달걀, 육류, 유제품들이 판매된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밭과 정원을 가꾸기 위한 종자, 묘목, 보조 기구 및 생활 속 세부장비도 선보인다. 식품 및 가공산업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품과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제빵류와 제과류, 요리 및 생선 제품, 청량음료와 크와스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이 행사의 방문객을 위해 마련된 주 창작예술단의 흥미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박람회 분위기에 흥을 돋울 예정이다.

사할린주, 산림 화재 대비책 강화

화재 다발 시기와 관련하여 산림 화재 대비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 정부 실무회의서 논의됐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들이가 잦아진 가운데 산림 화재의 위험도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수렵청의 지도자들에게 긴급 대응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24시간 안에 화재를 진압하도록 해야 한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이번 봄철 초기부터 사할린의 산림보호구역 6곳에 화재가 신고됐다. 마카로브, 돌린스크, 쿠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피해 면적은 9헥타르가 넘었고, 러시아 군사지역 2곳에서도 산림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는 산림 화재 대응책이 주지사의 주도로 일찍이 진행되는 가운데 산림 화재 대비를 위해 위성, 지상, 항공을 통한 감시망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총 2,434km의 5개의 항공 순찰노선, 5,157km의 53개 지상 순찰로가 정해졌다. 산림 소방대원 수도 29명이 증원됐고, 낙하산 소방대 그룹도 9명으로 증원됐다. 또한 민간 소방대원은 184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 소방기관의 산림 화재 진압 특수 장비는 185대이다. 이런 조치로 산림 3,200헥타르를 보호해야 하는데 사할린 남부에서 진행 중이며 북부는 날씨가 풀리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 마카로브 구역 방문

5월 13일(금) 마카로브 구역에서 주민들과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를 비롯한 주 정부 대표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앞서 이들은 지역 중심지 시설들을 시찰하고, 자원봉사자들과 대화하며,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과 만남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올랐고, 의료 분야에 대한 많은 질문이 오가는 가운데 이 지역에 의료 세부 과목 전문의가 없

음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산부인과, 아동 신경정신과, 아동 마사지 치료사 부족하고, 마카로브 중앙 구역 병원은 의료 차량과 입원실도 부족한 상태이다.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에 따르면 마카로브 중앙 구역 새 병동 건설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준비 중이라며 현재 이를 우선적 사업으로 보고 이미 병동 건설에 개인 투자금을 투입한 잠재

적 건설 특허권 소유자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료 세부과목 전문의 부족에 대해서는 주 보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고, 워스토츠노예 마을의 수질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택 공사사업부에 일임했다. 5월 23일에 마카로브 지역은 저소득층 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합류해 진행할 예정이다.

여름, 유즈노사할린스크·모스크바행 3편의 정기 노선 운항

여름철 유즈노사할린스크 - 모스크바행 왕복 항공편 증편된다. 매일 운항하는 '러시아' 항공과 함께 '아에로플랏' 항공편이 추가되고, 여름 성수기에는 셋째 항공편을 추가해 일주일에 5일 운항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주 정부와 항공사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결과이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 모스크바행 '러시아'항공은 매일 11시 45분에 출발하고, '아에로플랏' 항공은 매일 15시에 출발한다.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추가 항공편으로 매주 화·금·토·일요일 18시에 출발한다. 또한 성수기인 7월 5일

부터 10월 1일까지 추가 항공편이 증편돼 일주일에 5회(월요일과 목요일 제외) 운항한다. 7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는 단체 관광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어 전세기가 일주일에 1회 매주 토요일에 운항한다.

여름 기간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 - 모스크바행 정기 항공편으로 일주일에 19편이 운항될 전망이다. 항공편 증편과 함께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치 및 노위시비르스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를 통해 러시아 각 지역으로 갈 기회가 주어진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81루블리 5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5월 18일은 국제박물관의 날

주 향토박물관에 대해 애정을 가진 창의적인 사람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이 박물관 중 즐겨 다니는 곳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이다.

"사람들은 우리 박물관을 어릴 때 찾아오고, 결혼하는 날에 오고, 아이들을 낳고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향토박물관을 찾아오곤 합니다. 다음엔 이 아이들이 학생이 되어서 우리 박물관 찾아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찾아옵니다... 이렇게 몇 세대에 걸쳐 우리 박물관을 찾고 있는 거죠."라고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장 위탈리 세르게예비치 전시회 및 전시회 활동 전문가가 말했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사할린 향토 박물관은 정말 사할린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다.

국제박물관의 날을 앞두고 향토 박물관을 찾았다. 장 전문가가 '뻬오네르 소년단체 100주년' 기념 전시를 준비했다.

5월 19일은 어릴 적 추억이 있는 날인 '뻬오네르' 창설일이다. 이날에는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었고 즐거웠다.

장 위탈리 전문가에 따르면 전시회는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뭔가를 알려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안겨주어야 한다. 그래서 전시회는 계몽사업으로서 최고라고 말한다.

55세를 바라보는 위탈리는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태어났다. 항상 긍정적이고 문학과 연기를 즐기는 청년이었다.

사실 청년시절 그는 뭘 전공해야 할지 고민도 했다고 한다. 2년 군대 복무를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국립대학 지리물리학과에 입학하고 1년 공부하다가 포기했다. 꼭 대학에 입학해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부모님과 지키고자 그는 1990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국립사범대학(현 사할린 국립대) 역사학과에 입학했다. 그 해에는 여느 해와 달리 역사학과의 인기가 많았다. 그 당시 각 대학이 입학 시험이 있었는데 역사과의 통과 점수가 꽤 높았고, 신입생 대다수가 남성이었다. 2대1일로 남자가 많았다는 말이다. 이런 기록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던 같다고 장 전문가가 말하였다.

그의 동창생 중에는 현재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문서 보관소, 또는 박물관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꽤 있다.

장 위탈리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졸업생 대다수처럼 학교 교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고향인 우글레고르스크에 돌아가 교사로 근무했었고, 나중에 다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와서 교직에 전념했다. 역사 교사로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제15호

중학교, 제9호 중학교 등에서 10여년을 일한 후, 주 향토박물관에 입사해 15년째 근무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일하게 된 것은 타치아나 로온 전 박물관 관장 덕분이다. 대학시절 그는 초빙 교수로 활약해 재능있는 제자들을 박물관에 섭외했다고 한다.

처음 제안을 받을 때 생각을 좀 하고는, 학생들을 학기 끝날 때까지 지도한 후 학교와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학교는 언젠가부터 또다시 반복하는 느낌을 주었다 할까요... 반면 제가 일하는 박물관 부서에서는 새로운 전시기획들이 아주 많고 다양했죠.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 18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거든요.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소장품 전시가 해마다 5-6개가 있었는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 사업들이 취소되었거나 축소되어 최근에 다른 지역 전시 기획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장 전문가가 말했다.

사실 주향토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다른 박물관들의 전시회는 항상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전시 주제도 매우 다양했다. '차의 역사'부터 '여성의 옛 장식품', 러시아 국립중앙 박물관(루스키 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의 빛나는 소장품 전시가 그렇



다. 그런 관련 업무로 러시아 여러 지역 출장도 잘 다닌다. 전에는 자질향상연수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해서 이 기회를 타 정말 많은 박물관을 돌아다녔다고 장 위탈리가 말하였다.

그는 역사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 역사를 나름대로 잘 배우고 있는데 자기 향토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다. 바로 우리 박물관이 이런 지식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말한다.

사실 이번에 사할린주 학교 학생들을 위해 지역역사 교재를 개발했는데 이 교과서는 사할린국립대 교수와 향토박물관 연구 전문가들이 집필했다.

장 위탈리는 교과서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저서의 동료들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박물관 홍보가 나온다. 그가 박물관 자체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가 자기 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은 창의적이다. 심심하지 않다. 그리고 사할린에 온 손님이나, 아이나 모두에게 사할린과 쿠릴의 역사, 문화, 사회, 자연 등,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박물관에 있다."고 장 위탈리는 자주 말한다.

그가 동료들과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전시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시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다. 또한 동료들이 직접 집에서 가져온 전시품도 꽤 많다.

그리고 박물관 관람객과 직원의 자녀들을 위한 행사 개최에도 많이 참여한다. 심지어 새해 행사에서 몇 년간 '추위 할아버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인이 추위 할아버지를?' 그러나 연기를 잘하여 관객들은 언제나 좋아했다.

그가 일을 성실하게 해온 것은 그가 받은 많은 감사장과 표창장이 증명하고 있다. 작년에 사할린주 박물관 활동 125 주년을 기념할 때 그는 사할린 주주마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웁변이 아주 뛰어나고, 농담도 잘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하는 장 위탈리는 늘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하여 노력하며, 자기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여성, <뿔레 추제스> TV쇼에서 받은 차 루간스크 고아원에 기증

사할린 주민 나탈리아 트카첸코가 '승리의 날' 기념으로 명절에 방송된 대규모 TV쇼 <뿔레 추제스(기적의 들뜬)>에 참가해 행운을 얻었다. 게임에 젊은 장교들과 생도들이 초대되었고 군 역사가 방송의 주제였다.

2차에서 3명의 출전자와 게임을 통과한 사할린 여성은 결승에 진출했다. 전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4번의 상품 기회와 한 번 '열쇠' 소녀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선물을 거부하고 게임을 계속 이어갔다.

레오니드 야쿠보비치는 놀라워하며 "한 참가자가 상품 소녀에 이렇게 자주 들어간 적이 내 기억으로는 없다."고 말했다.

4차 게임에서 나탈리아가 상품을 거부하지 못하자 스튜디오 안으로 '검은 상자'가 들어왔다.

"정말 당신과 흥정할 수가 없군요. 자동차 열쇠입니다!!!" 라고 진행자가 외쳤다. 이 선물에 나탈리아와 스튜디오 안의 모든 참석자들이 펄 듯이 기뻐했다.

나탈리아 트카첸코는 이 선물을 루간스크 고아원에 기증했다고 동부 군사지구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ка, подарила автомобиль, выигранный на телешоу «Поле чудес», Луганскому детскому дому

Сахалинке Наталье Ткаченко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ичном выпуске капитал-шоу «Поле чудес», посвященном Дню Победы. На игру пригласили молодых офицеров и курсантов, а темой передачи стала военна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ка играла во второй тройке игроков и вышла в финал.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игры ей четырежды выпадал сектор «приз» и один раз сектор «ключ», но она отказывалась от призов и продолжала игру.

- На моей памяти, чтобы у одного игрока так часто выпадал сектор «приз», я этого просто не помню, - с изумлением сказал Леонид Якубович.

В четвёртый раз Наталья не стала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приза и в студию внесли «чёрный ящик».

- Я просто не могу с вами торговаться, ключи от автомобиля!!! - воскликнул ведущий. Наталья и вся

студия безумно радовались такому призу. Выигранный автомобиль Наталья Ткаченко подарила ребятам Луга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дом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사할린에서 인형극 축제 개최

제9호 인형극 축제 <칸막이 뒤 마법의 세계>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아나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우글레고르스크시 지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극단 대표들이 축제에 참가했다.

경연 결과 타라나이 마을 문화회관 '부라티노' 인형극단(감독 겸 예술가 나탈리아 자이체와)의 <까마귀는 왜 검은가> 인형극이 대상을 탔다.

축제는 원탁회의로 마무리한 가운데 공연 결과와 지역에 서 연극 예술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5월 16일 - 17일에는 사할린주 민속예술관에서 사할린 예술전문학교 평생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아마추어 연극단들 중에 인형극을 위한 창작 연극의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실습하는 활동교실이 열렸다. 활동교실 결과 지역 아마추어 인형극단의 대표들이 자각 향상에 대한 증명서를 받았다고 주 문화부가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куко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IX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кукол "Волшебный мир за ширмой".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з Анив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акаров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ных просмотров гран-при фестиваля получил спектакль "Почему ворон черный" театра кукол "Буратино", СДК села Таранай (режиссер и художник Наталья Зайцева).

Завершился фестиваль круглым столом, где обсудили итоги выступлений, а также имеющиеся проблемы по развитию любительск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регионе.

16-17 мая в зда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вместно с центром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прошел практический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теме "Особенности создания спектаклей для театра кукол в любительском театральном коллективе",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го руководители любительских театров кукол региона

получили удостоверения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코르사코브의 블라디슬라브 코베츠키 '올해의 학생'에 선정

'올해의 학생' 경연에 코르사코브 9학년 학생 블라디슬라브 코베츠키가 선정되었다. 이번 코르사코브 지역 단계의 경연에 6개 학교에서 총 8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시장 상 '천부적 재능'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치렀다고 지방 언론이 전했다.

각 참가자들은 성취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경연 시험을 훌륭하게 치렀다.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발표하고, 자신의 취미 분야를 널리 공유하며, 연설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펼쳤다. 경연이 이뤄지는 기간 내내 경연장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 부문에서는 '천부적 재능' 코르사코브 시장상을 수상하고, <2022 - 올해의 학생>으로 선정된 코르사코브 4호 학교 9학년생 블라디슬라브 코베츠키에게 우승이 주어졌다.

В Корсакове девятиклассник Владислав Ковецкий назван учеником года

В Корсакове девятиклассник Владислав Ковецкий назван учеником года.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семь учащихся из шести школ. Все они боролись за премию мэра «Одаренность»,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достойно прошел все конкурсные испытания, приложив максимум своих усилий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результата. Ребят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знания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делились миром своих увлечений, пробовали себя в ораторском мастерств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конкурсных дней на площадках конкурса царила дружеская атмосфера.

В номинации «В начале было слово» победа досталась девятикласснику школы № 4 Владиславу Ковецкому, который стал «Учеником года - 2022» и обладателем премии мэр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Одаренность».

(8면에 계속)

<에트노스>한민족 문화 예술과 졸업발표 공연 '천동의 모래의 환상' 감동 선사

지난 1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교장 위로호와 안나) 한민족 문화 예술과 8학년 학생들의 졸업발표가 있었다.

항상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는 한민족예술과 학생들은 이번에도 역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발표작은 한민족 전래동화 '요술 붓'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연 '천동의 모래의 환상'을 주제로 관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동화 주인공인 소년 천동이는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했지만 붓이 없어서 모래 위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렸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그림에 감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동이는 해변에서 마법의 붓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동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들이 살아서 움직였다. 원앙새를 그리면 원앙새가 마당 안을 포르릉 포르릉 날아다녔고, 학을 그리면 학이 긴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았다.

천동이의 환상을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이 무대 위에 실현시켰다. 공연에는 졸업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여러 반의 학생들이 훌륭한 무대를 꾸며냈다. 이날 이들은 민족 무용, 현대 댄스, 가요 연주와 신명나는 타악기 리듬으로 실재를 가득 채웠다.

작품 하나하나가 조화를 잘 이루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노력해 훌륭하고 멋진 결과를 이뤄냈다.

도라지 무용단· 개나리 무용단· 아리랑 무용단(지도교사 김 예브게니야), 빛나리 가야금 앙상블(지도 체오(조) 나탈리아, 파견 연주단(지도 박완순, 체오(조) 나탈리아), 별거리·빛울림·불꽃놀이 타악기 팀(지도 신 율리아), 무지개 무용단·희망 무용단·KGD현대댄스그룹(지도 김 안나), 듀엣 김수영·김 예와(지도 박완순)의 모든 공연에 관객들이 힘차고도, 아낌없이 보내는 갈채에는 '최고!', ' 훌륭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이날 공연을 축하하며 교사들과 졸업생들에게 꽃다발을 많이 선사했다.

1995년에 러시아 아동예술학교들 중에서 처음으로 <에트노스>학교에 한민족 문화예술과(과장 신 율리아)가 생겼다. 올해 27년을 맞이하는 유일한 한민족 예술과는 지금도 인기가 많다. 그동안 이 학교의 학생들은 다양한 국제적, 전국적, 지역적 경연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을 차지하고, 수상하여 <에트노스>의 한민족 예술과 이름은 국경을 넘어 널리



알려져 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민족 문화의 날 기념

지난 5월 15일(일)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은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공동으로 한민족 문화의 날을 개최했다. 12시와 14시에는 미술관의 <한반도 현대 미술>상설 전시관을 둘러 볼 수 있었고 15시에는 주한인협회 측에서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팀



(단장 송정석),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 최 율리아와 서 마리아 가수들의 짧은 공연과 한민족 문화에 대한 소개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를 많은 어린이와 성인들이 찾아온 가운데 한글 쓰기, 한민족타악기 문화체험실도 열렸다. 한글 쓰기 활동교실에서는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써보았고, 타악기 활동교실에서는 짧은 작품 하나 만들어보고 바로 발표공연을 했다. 관객들은 북을 치면서 여러 댄스 동작도 해보았는데 다들 만족하며 즐거워 했다. 이날 한복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한민족 문화의 날 행사는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 유산의 해'기념 행사 일환으로 진행했다.

(취재: 이예식 기자)

[신PD의 K 리포트]

글, 말, 그리고 이모티콘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 동료를 짝사랑합니다. 속마음 들키지 않게 남몰래 가슴 졸이며 사랑을 키워오다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합니다. 요즘 세대답게, 직접 얼굴 대하고 말하지 않고, 카톡 메시지로 사랑 고백을 보냅니다.

'친구 만나서 술 좀 했는데 자주 얼굴이 떠오르네요. 이 맘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 미친 사람처럼 당신만 생각합니다. 대책없이 당신이 좋아졌어요. 저 안취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 놀라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저와 사귀어주시겠습니까?' (가상으로 만든 이 고백 문자는 멜로망스의 노래 '취중고백' 가사를 사용했습니다.)



남자는 고백 카톡을 보내놓고 여자 이름 앞에 '1'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몇십 초 마다 열어보고 또 열어본 끝에 드디어 그녀가 메시지를 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런 답을 받게 됩니다.

'글쎄요'

이것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생각하시는 동안, 다른 고백 형식을 하나 더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글쎄요'라고 대답합니다. 어떤가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경우의 수를 하나 더 늘려 만일 '대면 고백'을 했다면요? 역시 그녀의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와 비슷한 고백의 경험이 있다면 제 말을 바로 눈치채실 겁니다. 세가지 고백 방법을 나눠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카톡 고백의 경우, 여자가 보낸 '글쎄요'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기에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다음 전화통화에서 여자의 말로 들은 '글쎄요'에는 문자보다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몇가지 추가됩니다. 그녀의 말하는 투, 즉 톤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끝이 내려가는 억양으로 힘없이 '글쎄요' 했다면 남자는 마음을 접고 실연의 아픔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밝고 명랑한 톤에 약간의 장난기 마저 있어 '글쎄요' 했다면, 네 남자분께 축하를 보냅니다. '그린 라이트'입니다. 글자로 받은 '글쎄요'와 비교해 정보의 양이 많아진 것입니다. 말의 톤과 억양이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대면 고백'일 경우의 '글쎄요'는 말투에 더해진 여자의 표정과 제스처 덕분에 정답에 가까게 예스와 노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문자로 받은 '글쎄요'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일 여자의 답문이 그냥 '글쎄요'가 아니라, '글쎄요^^'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겠습니까? 또 '글쎄요πππ' 라면요? 네, 두 상황은 같은 '글쎄요'이지만 뒤에 붙은 이모티콘에 따라 남자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일부 이견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글(말의 내용), 소리(톤, 억양), 외관(표정, 제스처)의 정보전달력 비중이 각각 7%, 38%, 55%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의사가 전달될 때 청각 요소에 귀속되는 톤과 억양, 시각 요소인 표정, 제스처 등을 빼면 7%만이 글자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학문적인 이론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여자의 카톡 답글 '글쎄요'를 보고 그녀의 진의를 확인할 수 없어 '뎡뎡'에 빠졌을 남자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이모티콘입니다. 2021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은 99%로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성인 10명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볼 것도 없이 우리가 휴대전화의 텍스트 메시지로 의사소통하는 비중은 매우 큼니다. '폰 포비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화 통화를 기피현상이 있으니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의사를 확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카톡, SNS, 문자 등 텍스트 위주로 소통하면 말투, 억양, 표정, 제스처 등은 배제됩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비언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청각적(말투, 억양), 시각적(표정, 제스처) 도움들이 없으면 정보 전달력은 떨어집니다. '글쎄요'라는 글자만 놓고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것이죠. 글자만 있는 소통 형식에 비언어적 도구로 보완하는 것이 이모티콘입니다. 뭔가 글자만 적으면 너무 '드라이해서' 상대가 오해할까봐 메시지 뒤에 'ㅋㅋㅋ, ㅎㅎㅎ, ^^, πππ' 같은 것을 찍게 됩니다. 이런 이모티콘들은 마치 한글 자모 24자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같이 이미 친숙해져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주고 받습니다. 주고받는 메시지에는 의미도 담기지만 감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의미 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보다는 '어떻게 말했냐'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쓴 문자 메시지에 의미는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뭔가 건조하고 또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를 할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작은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붙여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텍스트에는 담을 수 없는 톤이나 표정을 또 다른 비언어적 요소인 이모티콘으로 보완하는 것이죠. 이렇게 덧붙이는 이모티콘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도 담겨집니다. '내가 글로 드라이하게 써서 보내지만 ㅋㅋ, ㅎㅎ와 같은 마음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요즘 저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갈등의 순간을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속에 'ㅋㅋ, ㅎㅎ, ^^' 같은 이모티콘들을 장전해둬야 겠다고. 그래서 뭔가 대화가 잘 안풀릴 때에는 혼잣말로 이모티콘들을 제 말 뒤에 덧붙이려 합니다. 가볍고 또 정겨운 감정 기호들을 수시로 불러내면 '마상'(마음의 상처)을 좀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신원섭 (KBS 라디오 제작국장.shinwonsup@kbs.co.kr)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ошел в музее

15 мая 2022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ошел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Он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совместно с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этот день желающие могли совершить экскурсии по залу «Современное искусство Кореи».

Отл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гостям подарил концерт сахалин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солистов: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Ханль», танцев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Ариранг», вокалистки Юлия Че и Марина Со. Также гостям музея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презентация, рассказывающая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ее особенностях и традициях.

Ну и конечно же, всем пришлось по душе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каллиграфии, где гости смогли напис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фразу «Расцвели цветы мугунхва». А на мастер-классе по игре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желающие изучили не только ударные ритмы на корейском барабане «бук», но и несколько танцевальных движений. Пользовалась популярностью и фотозо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костюмы».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2022 год – год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Фото: Ли Е Си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Навечно в памяти народной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овесть о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лекandre Павловиче Мине

В.Д. Ким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17, 18)

30 июля 1944 года

Командир 605-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полковник ФЛОМЕЕВ

Командующий войсками 47-й армии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ГУСЕВ

Указом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оюза ССР от 24.03.1945 года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от что вспоминают однополчане Героя в книге «Год 1944. Зарницы победного салюта».

«В районе Ковеля шли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и. Гитлеровцы упорно сопротивлялись, стараясь удержаться в созданных ими укрепленных пунктах. Одним из таких пунктов являлось село Старые Кошары. Взять его нужно было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и выполнить эту задачу предстояло 605-му стрелковому полку.»

Командир полка вызвал на свой КП командира батальона А.П. Мина и, указав на карте конкретные участки, сказал: «На вас надежда, товарищ Мин. Обойдите Старые Кошары с правого фланга, проберитесь в тыл, а затем уже станет ясно, что делать. Ударить внезапно, да так, чтобы фрицы и опомниться не успели.»

В штабе полка знали: если на задание отправляется Мин — успех обеспечен. Ордена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I степени,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которыми был награжден капитан Мин,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и о его командирском мастерстве и отваге.

Свой батальон Мин повел ночью. Преодолев болотистую местность, он обошел Старые Кошары и приблизился на рассвете к окраинам села. Смельчаки разведки пробрались к огненным позициям вражеской батареи и взорвали орудия. Это послужило сигналом к атаке.

Бойцы батальона открыли дружный ружейно-пулеметный огонь. И вот уже капитан Мин ведет стрелков в штыковую атаку.

— Бей, круши фашистских гадов! — призывал комбат, находясь впереди атакующей цепи.

Он колот фашистов штыком, бил прикладом. И бойцы, увлеченные примером командира, дрались с особой отвагой.

Батальон очистил деревню от противника, а Мин повел своих храбрецов на штурм другого вражеского опорного пункта — село Стародуб.

Сколько раз вот так поднимал в атаку, в рукопашную воинов бесстрашный комбат Александр Павлович Мин.

В армию А.П. Мин ушел из города Волжска Сара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фронте он всегда находил выход из самых сложных и опасных ситуаций. Десятки атак возглавлял Мин, когда шли упорные бои за Ковель. Здесь, во время одной из схваток, когда комбат вел бойцов в рукопашную, его сразила вражеская пуля.

В Указе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говорится:

За образцовое выполнение боевых заданий командования на фронте борьбы с немецкими захватчиками и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этом отвагу и героизм присвоить звание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вручением ордена Ленина и медали «Золотая звезда» Капитану МИНУ Александру Павловичу.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М. КАЛИНИН

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А. ГОРКИН

Москва, Кремль, 24 марта 1945 года.

Герой был первоначально захоронен в деревне Пародубы, а в 1952 году перезахоронен в братскую могилу в поселке Луково Ту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олы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июле 1988 года в честь 44-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города Луково на братской могиле, где захоронен Герой, был возведен монумент Славы. Это знаменательное событие было описано в газете «Ленинская правда» (Украина) 21.07.1988 года.

«На окраине Луково, под тишиной вечности, что просвечивает сквозь кроны деревьев, склонил голову Бронзовый солдат, положив одну руку на автомат, а другую — на бронзовый венчик. У подножья — цветы. Здесь о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женщины в черных траурных платках, останавливаются седоголовые мужчины, дети. Это символ солдатского бессмертия. А дальше он перерастает в монументальное обобщение воинского подвига с поименным почтением тех, кто его сделал. Красного цвета обелиск обнимает написанная золотыми буквами стела с мраморными отводами (открыльями). А на мраморе — имена, имена, имена...»

Этот новый монумент Славы возведен к 44-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поселка Луково от немецко-фашист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Автор проекта — луц-

кий архитектор Сенник Я.В. Он был построен, в основном, самими луковчанами.

День 17 июня 1988 года стал большим праздником для жителей Луково, других се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йцентра, приезжих гостей. Под звуки музыки духового оркестра нескончаемый людской поток движется к месту проведения главного торжества. Впереди знаменосцы высоко подняли флаги пятнадцати советских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 Плышет на руках людей поток венков. А народ все прибывает. И вот уже дорога, что ведет к мемориалу, заполнена во всю ширь.

Все ближе он,

И тише марша звуки.

И день июльский

Встает с десятилетий.

Возле нов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остоялся митинг. Его открывает кратким вступительным словом председатель райисполкома В.М. Бучинский.

— Сегодня, — говорит он, — отдавая дань безмерного уважения и памяти воинам, которые ценою своей жизни отстояли наше сегодняшнее, мы собрались на открытие мемориала Славы. Право зажечь Вечный огонь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частнику боев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Луково, Герою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ихаилу Федоровичу Орлову, ветеранам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Ларисе Васильевне Соболевой и Леониду Ивановичу Пацерику.

М.Ф. Орлов наклоняет факел. Вспыхнуло пламя бессмертия. Гремит трехкратный салют. Под дробь барабанов вступает почетная вахта. В.М. Бучинский представляет слово второму секретарю райкома партии Украины В.О. Троцю.

— Сорок четыре года тому назад, — сказал говорящий, — свершилось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шего района от немецко-фашист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Прорыв оборонных ненавистного врага в районе Ковеля открыл доблистной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победный путь на Запад, дал возможность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народам стран Европы, которые томилась под гнетом фашистского рабства. Дорогою ценою досталась нам Победа. За нее наш народ заплатил двадцатью миллионами жизней.

Только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поселка Луково и окружающих сел полегло смертью храбрых около 4700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В братской могиле похоронены останки Геро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 гвардии капитана Александра Павловича Мина и гвардии старшего лейтенанта Александра Иосифовича Молева. Здесь покоится прах верных сынов Отчизны — полковника Егора Ивановича Зайцева, майора Ивана Андреевича Голодухина, капитанов Ивана Корнеевича Доманицкого, Дмитрия Федоровича Демидова, Николая Михайловича Жарикова, Гавриила Павловича Шляхова, Иосифа Григорьевича Шапошникова, лейтенантов — Хакима Абрашибовича Абрашибова, Зима Яковлевича Бухбиндера, Павла Пантелеевича Воробьева и многих, многих друг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рудящихся района возлагаю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венки. Ветераны и их юная смена обвивают монумент гирляндами Славы.

Цветы, цветы, цветы с теплых ласковых рук цветом невянущей памяти покрывают суровый мрамор.

На братской могиле всегда можно увидеть свежие цветы, их приносят сюда украинская молодежь и школьники, хорошо знающие о подвиге героев, в том числе и о подвиге А.П. Мина.

К сожалению, только лишь украинская молодежь и школьники приходят почтить память того, кто отдал свою жизнь за их счастливое детство. Объясняется это грустным явлением тем, что имя А.П. Мина до сих пор было незаслуженно забыто. О его подвиге не знает даже большинство бывши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этом повинны тоталитарный режим и проводимая им политика геноцид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малочисле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Было все сдела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малить светлый подвиг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этого народа.

Мин Александр Павлович, 1915 года рождения, кореец, член КПСС, окончил Рязанское пехотное училище и три курса Саратовск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института. В рядах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с 1941 года, воинское звание — капитан, командовал стрелковым батальоном 132-й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Погиб в бою 9 июля 1944 года в Волынской области Украины.

За образцовое выполнение боевых заданий командования и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этом отвагу и героизм Указом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24 марта 1945 года (посмертно) А.П. Мину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вручением ордена Ленина и медали «Золотая Звезда».

(Из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обсудят на саммите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 ходе самми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21 мая в Сеуле,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Юн Сок Ёль и Джо Байден обсудят актуальные двусторонни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опросы.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жнокорейский и американский лидеры затронут меры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действиям Пхеньяна,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вопросах стабилизации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содействие развитию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клад двух стран в решение насущ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блем.

Участники саммита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укрепления доверия между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двух стран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амках двустороннего альянса. Саммит и совместна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пройдут в новом офисе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столичн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Ёнсан-гу.

В РК появится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удет создан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11 мая в Сеуле на встрече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ми на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о единое глобальное сообщество корейцев, которое обеспечит условия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Для э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прак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ой,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укрепление прав и интересов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пообещал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услуг для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пересмотреть законы, вызывающие 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удобства. Среди обещаний Юн Сок Ёля также проверка и доработка системы выборов за рубежом, укрепление связей с зарубежн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о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одготовка кадров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100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19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едомств.

Под зарубежн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одразумеваются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прожив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а также граждане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в прошлом им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1 год, во всем мире проживают 7 млн 325 ты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ибольшее их количество проживает в США – 2 млн 630 тыс.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Китай, Япония и страны Европы.

В 1997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был учрежден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поддержкой их объединений, защитой прав, укреплением связей и воспитанием кадров будущего сред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днако фонд не явл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что не позволяет ему проводить соб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Группа BTS получила три награды Billboard Music Awards 2022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ойз-группа BTS получила три награды на Billboard Music Awards 2022 года.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которая транслировалась 15 ма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с MGM Grand Garden Arena в Лас-Вегасе, было объявлено, что группа удостоена главной награды Top Selling Song (Самая продаваемая песня), а также получила титулы Top Duo/Group (лучший дуэт/группа) и Top Song Sales Artist (лучший исполнитель по продажам песен). BTS получают как минимум одну награду на ежегод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каждый год, начиная с 2017 г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и были номинированы на четыре награды и выиграли все четыре.

Влияние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р России на РК будет ограниченным

12 м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обнародовало список зарубежных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ых применя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меры в ответ на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ряда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и организаций.

Как сообщили 13 ма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прямое влияние данных мер на РК будет носить ограниченный характер поскольк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 список не входят. Специаль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меры, принятые Россией,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с 3 мая. В вышеуказанный перечень вошла 31 компания из Герман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Франции и ряда других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а также из США и Сингапур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тметили,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меры нацелены на ограничение экспорта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Корейская газовая корпорация не имеет контактов с вышеуказан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рошлый год, зависимость РК от поставок газа из России составляла 6%. Учитывая обострение ситуации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цены на газ, вероятно, будут расти. Поэтому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мерены предпринять все возможные ме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траны газом в необходимых объемах.

(RKI)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захлестнула волна COVID-19

После признания властя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то в страну, несмотря на жесточайшую самоизоляцию, проник-таки COVID-19, события в КНДР развиваются по сценарию пандемии, который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наблюдали полтора-два года назад: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зараженных, а с ними и численность жертв.

При этом Стране чужие грозит очень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й сценарий, так как у них нет вакцины, часто даже базовых медикаментов и тестов, а население имеет ослабленный иммунитет из-за проблем с питанием. Пхеньян уже обратился за помощью к Пекину, но отказывается принимать предлож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выразила готовность помочь в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Эксперты же подозревают, что COVID-19 гуляет по КНДР уже гораздо дольше, чем было заявлено, а признание оказалось вынужденным, так как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скрывать масштаб проблемы и иначе сложно было объясни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экстренных мер.

12 мая власти КНДР признали проникновение в страну коронавируса COVID-19, и с тех пор новости напоминают то, что видели ранее в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но в 2021-2022 г.: сплошные сводки количества зараженных и умерших.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вечер понедельника 16 мая, когда СМИ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ли последние данные по эпидемии, в стран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почти полтора миллиона людей с повышенной температурой, число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случаев COVID-19 составило 168, а умерших - 56. При этом каждый день фиксиру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прирост тех, у кого выявлена повышенная температура. Проблема с этими данными в том, что хотя, конечно, не все с температурой являются зараженными коронавирусом, но при этом очень часто бывает так, что и COVID-19 может не проявлять себя в виде повышенной температуры. Кроме того, тот штамм COVID-19, который был выявлен в КНДР,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температурой только в десяти процентах случае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же не обладает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тестов,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прояснить картину и своевременно выявлять заражен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Так что в реальности, как полагают многие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реальное число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куда больше, чем пишу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газеты. Также очевидно, что инфекция охватила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похоже, по-

нимает масштаб проблемы. Тот же Ким Чен Ын уже который день раздает направо и налево своим подчиненным жесткие указания, подчеркивая, что в системе антивирусной защиты нации произошел сбой, а в стране имеет место полноценная экстренная ситуация. По вс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граничено передвижение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регионами, для распределения медикаментов мобилизованы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радио и телевидение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в стране чрезвычайное положение.

Так или иначе сейчас очевидно, что ставка властей КНДР на полную самоизоляцию, которую они ввели раньше всех в мире, еще в январе 2020 г., хотя долгое время и позволила продержаться, но в итоге дала сбой.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COVID-19 нашел брешь в "оборон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крепости", проник в нее и сейчас вовсю буйствует.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можно бы сказать, что КНДР должно быть проще: выявленный вирус отнюдь не самый смертельный из тех, что относится к COVID-19, да и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уже накоплен значительный опыт в отношении того, как надо справляться с пандемией.

Однак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оложение Страны чужие наоборот куда сложнее. Во-первых, сделав ставку на самоизоляцию, КНДР не участвовала в программах распределения вакцины. Сейчас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актически никто не вакцинирован. Во-вторых, в КНДР не хватает даже самых базовых медикаментов и лекарств, не говоря 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Нехватка стала следствием как самоизоляции, так санкций и бедности. В-третьих, хотя население КНДР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итается лучше, чем, скажем,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990-х гг., но все равно это далеко от полноценного рациона,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норм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рганизма. В результате многие, если не большинство, просто слабы априори, у них ослаблен иммунитет, который, как известно теперь, часто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фактором в борьбе за выживание при схватке с COVID-19. Все э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тому, что в КНДР показатели летальности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будут куда выше, чем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Вопрос тепер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делать КНДР, как реагировать. Понятно, что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ы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поставки вакцины, медикаментов, тестов и прочего. Хот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у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ложило КНДР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о поставках помощи, но Пхеньян упорно игнорирует эти сигналы. Уже второй день подряд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просто не берут трубку телефона, по которому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общение Юга и Севера. Как видится, делается это по идеологическим соображениям. Сейчас КНДР активно ведет разработку ракетных вооружений, проводит тесты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в том числе против Южной Кореи, а потому протягивать руку с просьбой о помощи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будет выглядеть как потеря лиц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воими силами вряд ли получится справиться, как минимум, КНДР не с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себя ни вакциной, ни прочи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сообщениям СМИ, Пхеньян обратился за помощью к Пекину. Если верить публикациям в зарубежных изданиях, то Китай уже направил около десятка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для оценки ситуации и помощи в разработке мер.

Кроме того,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понедельник 16 мая после долгого перерыва КНДР "открыла небо".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из Пхеньяна вылетели сразу три грузовых самолет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приземлились в аэропорту Шэньяна, что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КНР. Там они получили груз и уж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вернулись обратно на родину. О содержании груза ничего не известно, но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самолеты доставили необходимые Пхеньяну медикаменты,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препараты.

Правда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открытым вопрос, что же делать властям КНДР внутри страны для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изучить и применить опыт Китая,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корее всего ждет эпоха жестких локдаунов. Эта мера может быть действенной, но на начальных этапах, а не тогда, когда COVID-19 распространился уже по всей стране. Кроме того, блокирование связей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не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крестьян вести высадку риса приведут к параличу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еребоям с поставками товаров,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к резкому падению урожая. А это уже может грозить голодом. В общем, руководству КНДР есть о чем подумать.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 7)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Партнер,
"Полигранд"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ин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 **581 руб. 5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PP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ч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Глава региона 19 мая представил отчет перед депутатами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год. Одной из важных тем доклада стало стабильно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островов.

– У нас развито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пищев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Мы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иваем себя картофелем и яйцом, на две трети овощами, молоком и молоч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Всеми видами мяса – на 22 процента. Рыбой и рыбопродукцией – полностью. То есть, мы имеем надежну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боту,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спекуляцию с ценами на привозные товары, которые не производятся на островах. В частности, островным оптовым и торговым сетям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в выстраиван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напрямую с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минуя звено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осредников. В зоне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 сахар, мука, гречка, рис и други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продукты. В оптовом звене созд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товарные запасы.

–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масштабная 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 более чем 40 направлениям. Она разработана в рамках политики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и наполняется всё нов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табильное снабж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обствен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 Сейчас у наши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ес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тимул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Раньше могла помешать высокая конкуренция с зарубежны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Теперь же предприятия могут выйти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сво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ращивать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еще больше расширять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ч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сейчас, в условиях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 считает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мя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фабрики «Золотой Теленок» Алексей Плотников.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на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едетс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сети экономформата. Сегодня она насчитывает более 720 торговых точек –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фирменных объектов торговли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автолавок, которые доставляют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в отдаленн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Через эту сеть реализуется почти четверть всег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области.

Продукты, которые произведены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аются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с наценкой не более 15%. Товары, которые завозятся из-за пределов области, попадают туда в основном по прямым договорам поставки, что позволяет удерживать цены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на 15-20 % ниже рыночных. В перечн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дуктов – молоко, крупы, картофель, мука, хлеб, макаронные изделия, сахар, соль, чай, яйцо, масло, рыбные консервы, вареная колбаса, мясо птицы, говядина, свинина, а также овощи и фрукт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казывается помощь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том числе возмещаются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на доставку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 районы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Это позволяет сдерживать рост цен на товар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азвернулась важная работа по укреплени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властей бизнес сдерживает цены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товар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выгодно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торговые точки экономформата. Не все люди могут позволить себе делать покупки в супермаркетах,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развивать эту сеть, – отметил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ергей Бондарев.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у жителей всех районо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регулярно приобретать свежемороженную рыбу напрямую от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исключаются расходы на хранение и переработку, удается продавать дары моря по ценам,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рыноч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ошли в базу нов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латформы RUSSPASS

Платформа позволяет получать весь комплекс туристических услуг, в том числе приобретать авиа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билеты,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туры и отде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Преимущества ресурса обсудили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на платформе размещены данные о 14 региональных туроператорах, 11 турах, 2 маршрутах, 13 экскурсиях и нескольких музеях.

–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гостиницах, их пока 4 на платформе. Задача – занести абсолютно все гостиницы, которые действую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же касается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ов,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ных с туризмом. Это и кафе, кинотеатры и театры, вс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у нас турмаршруты. Ожидаем, что к концу года на платформе будет около 500 островных объектов. Призываем подключиться к работе всех, кто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к сфере,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Чтобы стать партнером платформы, достаточно зайти на сайт <https://russpass.ru/>, в разделе «Партнерам» заполнить заявку, заключить договор и разместить предложение.

Также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инвестсовета обсудили ряд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посетители популярных мест отдыха в регионе. Из зала прозвучал вопрос о недостаточ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например, мыса Евстафия или Птичьего.

– Мы придерживаемся курса, чтобы у нас осталась девственная природа. И не хотим заромождать эту прекрасную природу, ради которой к нам едут туристы, чем-то лишним. Но, безусловно, доступность должна быть. К некоторым местам в будущем сделаем грунтовые дороги, а там, где официально дорог нет, надо обеспе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езда, хотя бы на высокопроходимой технике,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туроперато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ина Ли обратилась с просьбой увеличить частоту рейсов на Курилы, поскольку в пик сезона из-за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туристам не хватает мест, даже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на линии работают новые теплоходы «Павел Леонидович» и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региона, частота рейсов будет увеличена, если возникнет потребность

Более 110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ереехали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к началу мая

Всего в 2022-ом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получают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2021-ом новоселье отметили около 4 тысяч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озв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ая перед депутатами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 ежегодным отчетом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новостройки сдали в Поронайске, Корсакове, селах Углезадовск и Стародубско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еле Зональн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в райцентре, на Итурупе.

– Мы держим курс на ускоренное расселение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приступила к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федеральные ресурсы. Мы существенно нарастили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дали рекордные 503 тысячи «квадратов» – это порядка 7 тысяч квартир. В этом году намерены держать планку,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чти треть всего строящегос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жилья является социальным. Помимо того, развивается индустриаль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 разворачиваются площадки под крупные жилые кварталы. Т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микрорайона «Горизонт».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до 2025 года новоселье там отметят 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ятся также жилые комплексы: «Уюн» и «Северный городок», где в перспективе смогут поселиться почти 2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артал»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Дальнем.

–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темп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регионе реализовали комплекс мер поддержки строите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Дано право на увеличение размера авансовых платежей по госконтрактам, применяется механизм изменения цены контракта для компенсации удорожан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Мы наращиваем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что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вает рынок первичного жилья и позволяет сдерживать стоимость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на островах,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масштабных планов в регионе созданы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пустили «Дом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1», где изготавливают железобетон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для крупнопане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кая технология позволяет возводить качественные современные дома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глава региона уделил внимание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Уже заключен контракт н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тделения поликлиники № 2 на 12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в Дальнем. Заверше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в октябр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приступят к возведени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рпуса школы № 30 на 550 мест в Луговом. Еще одна школа на 1260 мест на пересечении Комсомольской и Пограничной будет возводить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идет актив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циально важных объектов.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возводят школу и центр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селе Новом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ближается сдача детского сада. Благодаря пози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и одна запланированная стройка не остановилась, а даже, наоборот. В этом году возобнов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манежа и центра бок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роить ФОК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и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ударными темпами. Возводится более 1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на человек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7 место в России по количеству вводимого жиль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приемной председател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а Наталья Захарчук.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ются вне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С помощью механизма концессии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ы на 1260 мест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на 240 мест на улице Больничной. Подписана концесс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На принцип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е од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ликлиники №4 и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а также поликлиник в Углегорске и Холмске.

Компания «Газпром»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 возводить три объекта: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ледовую арену, а в последующем – школу на 1100 мест и детский сад на 240 мест.

34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ошли углублен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с начала года

Всего в 2022-ом стоит задача провес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90 тысяч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 на 17 тысяч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ая перед депутатами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 отчетом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год.

– Диагностика – это лучший способ выявить опас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После углубленных обследований на дальнейшее лечение направили почти 9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анее не подозревавших о своих болезнях. А это спасенные жизни люде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ациентам в возрасте 65+ и мужчинам 55+. На островах действует 15 центров углубл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В апреле такие открылись в Курильске и селе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будет запущен корпус поликлиники №4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де также разместится центр медосмотров. Он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более 400 человек за смену.

– У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разные программы диагностики. Узкопрофильн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конкретных систем и органов. Например, желудочно-кишечного тракта, сердца и сосудов,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здоровья. Есть и расшир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нацеленные на диагностику всего организма. Ввод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ает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внедрять такие передовые методы, а жителям – вовремя обследоваться и приступать к лечению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 поясн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лучшили систему записи к врачу. Графиком рабо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чали управлять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количество свободных талонов увеличилось более чем на 30 процентов. Часть врачей из стационаров направили на работу в поликлиники, что позволило увеличить мощности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К пример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ерапевты раньше принимали 730 человек в день, сейчас – около 1140.

Налажена система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пациентами. После визита к врачу телефонный робот обзванивает людей и просит по пятибалльной шкале оценить качество и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Если по отзывам пациентов, на прием к терапевту и узк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можно записаться в ближайшие 5 календарных дней, поликлиника попадает в зеленую зону. Если разрыв увеличивается с 5 до 10 дней – уходит в желтую зону, если свыше 10 дней – в красную. В этих случаях сахалинский минздрав или главный врач могут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 введ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талонов за счет увеличения времени работы врачей или привлечения их из стационаров. В районах, где отсутствуют уз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блема решается с помощью телемедицин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работы выездных бригад, график которых подстраивается под потребности конкрет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 регионе упростили систему записи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Пациенты,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 на учете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визита к терапевту.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записаться с помощью телефонного сервиса 1-300. Отметим, что время дозвона сократилось с десятков минут до нескольких секунд.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ткрылся доступ к электро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карте.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можно отложить талон к врачу и увидеть результаты своих медицинских обследований.

Отметим, что в 2021 году свыше 3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получил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Уменьшилась доля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выезжают на оп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На Сахалин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тся по 18 профилям. Для этого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 проводится обуч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куплено перед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ахалинские врачи освоили радиочастотные абляции в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хирургии. В травматологии-ортопедии расширили методики по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ю суставов конечностей. В онкологии ст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нутритканевую, внутрисплетенную и аппликационную лучевую терапию.

Свыше 1,1 млрд рубл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правили на закупку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상반기 기업상담회' 성료, 비즈니스 상담 239건, 1억 2천 4백만 달러 성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지난 9~10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상반기 기업상담회'에서 총 239건 1억 2천 4백만 달러의 비즈니스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기업상담회는 오는 11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의 사전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참

가기업들의 계약 체결 확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제고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재단은 이번 참여기업 중 미국 FDA 승인 제품을 가진 기업 대상으로 내년 미국 개최 예정인 '제21차 세계한상대회'까지 연계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상반기 기업상담회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태국 등 23개국 73개 기업의 한상·해외바이어와 국내 우수중소기업 63개 사가 참여하였다. 특히 최근 K-문화의 전 세계적 유행과 더불어 한국적인 제품을 찾는 해외바이어들도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해 활기를 불어넣었다.

Prothai, Co.,Ltd는 태국에서 40여 년간 한국 식품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 이번 상담회

를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제품 및 브랜드를 소싱하는데 초점을 뒀다.

폴란드의 Flavor Hub spzoo.sp는 유럽 연합국가 내 아시아 푸드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유럽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트렌디한 아이템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생활용품과 식품, 의료기기 등 주요 관심 분야 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이번 상반기 기업사

담회가 국내 우수중소기업들이 한상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참가기업들이 금년도 울산 한상대회 및 내년도 미국 한상대회까지 연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동시에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상담회와 더불어 9일 저녁에는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온라인콘서트'가 열렸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된 이날 온라

인콘서트는 재외동포재단의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 설명회', 도미니카공화국 한상인 최상민 YBLN 회장의 글로벌 CEO 강연, 취업컨설턴트의 '해외 취업 추세와 취업 팀' 강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한상드림의 각종 지원제도 소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튜브 누적조회 수 5만 3천여 회를 달성하는 등 많은 국내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해외 진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захлестнула волна COVID-19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5)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же задаются вопросом, как коронавирусом мог проникнуть в казалось бы "наглухо закупоренную"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к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вспышка COVID-19 произошла сразу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По поводу первого вопроса можно только спекулировать.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кто-то случайно завез COVID-19 из Китая, когда с середины января стали потихоньку возобновлять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КНР и начали движение грузовых состав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готовилась к проведению больших праздников, которые в 2022 г. носили юбилейный характер (80-летие Ким Чен Ира, 110-летие Ким Ир Сена, 90-летие созда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НДР), 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ы были поставки разных товаров 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чтобы создать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Да и в целом было ощущение, что коронавирус в Китае практически отступил.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кто-то и привез COVID-19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Другим возможным каналом проникновения COVID-19 в Страну чучхе являются какие-то еще оставшиеся и функционирующие несмотря на строжайшие запреты маршруты поставки контрабанды. Изоляция КНДР привела к дефициту разной продукции, нехватке валюты, да и санкции блокировали нормальную торговлю. Возможно, что кто-то сумел-таки наладить схемы переправки в КНДР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т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есурсов (морепродукты, уголь и пр.), а в процессе проведения перевозок и был передан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опрос же о вспышках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того, что по всем признакам является именно коронавирусом, заставил зарубежных экспертов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COVID-19 был занесен в страну уже как минимум недели или месяцы назад, а сейчас все подошло к такой черте, когда чрезвычайную ситуацию уже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скрывать, как и сложно было бы "просто так" вводить неизбежные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Похоже, что проведенные в связи с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праздниками в феврале-апреле крупные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сопровождались народными гуляниями, демонстрациями и собраниями, и привели 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COVID-19 среди народа и последовавшим затем вспышкам. Специалист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что вс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на тот момент были без масок, но в то время это было воспринято, как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уверенности КНДР в свое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неприступности". Но, если перефразировать известную фразу И.В.Сталина, последующие события доказали, что нет таких крепостей, в которые бы COVID-19 не смог проникнуть. Даже Страна чучхе не устояла перед напором коронавирус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제24회 재외동포 문학상

2022. 4. 22.(금) ~ 6. 20.(월)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로 접수
 (한국시간 기준)

문의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T +82-2-3415-0143
 E culture@okf.or.kr

응모자격

성인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 / 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한 만 19세 이상 재외동포
청소년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 / 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초등 부문(만 7세 이상 ~ 만 13세 미만) 중·고등 부문(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입양동포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동포 및 자녀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불가

공모 부문·주제

성인 •시 •단편소설 •일반산문 (체험수기·수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단편소설: 자유 일반산문 수필: 자유 체험수기: 이민과 정착 과정 중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
청소년 •글짓기 (중고등, 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 학습·한국문화 체험 경험담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낀 경험담 자랑스러운 세계시민(글로벌 코리아인) 나와 친구들 기타 자유 주제
입양동포 •입양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모자(입양동포 또는 자녀) 본인의 경험담 본인, 가족의 정체성 확립 여정 및 '뿌리' 탐색기 기타 자유주제(가족상봉, 한국 방문 경험담 등)

* 응모 시 공모문의 원고 분량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입양수기의 경우 미발표 한글 또는 영문 작품)

시상내역

성인 •시 •단편소설 •일반산문 (체험수기·수필)	대상(부문별 1명) 우수상(시·단편소설 2명, 체험수기·수필 각 1명) 가작(시 5명, 단편소설 3명, 체험수기·수필 각 2명)	500만원, 상패 250만원, 상패 100만원, 상패
입양동포 •입양수기	대상(1명) 우수상(1명) 가작(2명)	500만원, 상패 250만원, 상패 100만원, 상패
청소년 •글짓기 (중고등, 초등)	최우수상(부문별 1명) 우수상(부문별 2명) 장려상(부문별 3명)	100만원, 상패 50만원, 상패 30만원, 상패
한글학교	특별상(2개교)	200만원, 상패

접수방법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접수

코리아넷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해 첨부파일로 작품 제출
 (첨부파일은 응모자명, 응모분야, 작품명 순으로 기재)

* 수상자는 추후 재외동포재단을 위한 증명서류 별도 제출

주최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에서 가짜 수사관들의 전화가 잦아져

사할린에서 가짜 수사관들의 전화가 잦아지고 있다.

전화번호를 조작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러시아 수사위원회 직원이라 사칭하며 사할린 주민들에게 전화하는 사례가 있다고 수사국이 전했다.

전화 통화로 가짜 수사관들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현금을 갈취하려는 사기꾼을 범죄 행위로 입건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통화상으로 수신자의 현금의 안전을 언급하며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이대로 하면 이후 돈은 즉시 사라진다.

새로운 수법의 사기행각 적발과 관련해 수사위원회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이와 유사한 전화가 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участились звонки от лжеследователей

На Сахалине участились звонки от лже-следователей.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вонят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омпьютерных программ по подмене телефонных номеров и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отрудниками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лед-

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ходе беседы не настоящие следователи рассказывают доверчивым сахалинцам о заведении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на мош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якобы собираются завладеть их денеж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деньги нужно «обезопасить». Например, перевести их или снять наличные и положить на другой счет. После этого деньги как правило исчезают.

В связи появлением новой схемы мошенничества след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осит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роявлять бдительность и в случае поступления подобных звонков срочно сообщать о них в органы полици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주립 팔씨름 대회 열려

사할린 주립 팔씨름 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기드로스트로이'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경기 우승을 놓고 유즈노쿠릴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흠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30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경쟁했다.

경기는 남녀 7개 체급별로 진행된 가운데 출전자들의 양손 경기가 이뤄졌다. 경기는 양손 대결의 2차전에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가 우승자가 되었다. 승점이 같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체급이 낮은 선수에게 우승이 주어진다. 경기 결과 오픈 체급별 부문에서 가장 강한 팔씨름 선수는 레오니드 도로니이였고, 2위는 슴바트 타테와산 선수가 차지, 3위는 이완 스미르노브가 차지했다.

사할린주 팔씨름연맹회 김 블라디슬라브 회장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전 러시아 팔씨름 대회에 선발되어 출전하게 되며, 앞으로 사할린주 아마추어 팔씨름 선수권 대회가 2022년 가을에 열릴 예정이라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Кубок области по армрестлингу прове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уб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армрестлингу провели 15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базе спорткомплекса "Гидрострой". Победу в состязаниях оспаривали свыше 30 участников из Южно-Курильска, Корсакова, Анивы, Холм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орьба велась в семи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среди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омериться силами на обеих руках. Победителя выявляли по сумме очков за оба раунда. При равной сумме очков победу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ам присуждают спортсмену с наименьшим весом.

По итогам состязаний сильнейшим армрестлером в абсолютной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стал Леонид Доронин. Серебро завоевал СмбаТ Татевасян, а замкнул тройку призеров Иван Смирнов.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ции армрестлинг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а Кима, спортсмены, занявшие первые места, будут отбираться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переди у сахалинских любителей армрестлинга чемпионат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осенью 2022 го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